저주에 해독제를 가하면 축복 된다

(여호수아 8:30~35)

30.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저주에 해독제를 가하면 축복 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저주에 해독제를 가하면 축복 된다'
해독제와 강장제를 비교해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강장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이 정상인 상태에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몸의 각 기능을 튼튼하게 하려고 먹는 약이고 '해독제'는 중독되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즉 정상인 사람의 상태를 제로로 보자면 강장제는 향상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쪽으로 향하려는 마음에서 쓰는 약이고, 해독제는 문제가 제로인 정상 상태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간 상황을 제로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쓰는 약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은 강장제가 아닌 해독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중독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본래의 정상 상태만 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음 받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삶의 자리가 기본적으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유전적인 죄로 인해서 저주로 특징지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을 정상적인 상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리적으로 유전 죄를 알고 있는 선민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착각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자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 있는 저주의 자리인데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증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상황을 소망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장제를 쓰는 사람들이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를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강장제를 쓰는 마음가짐으로 축복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축복을 향해 가려는 마음이 착각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인 상태에서는 삶의 진정한 복이 주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리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향하여 나가야만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것은 지금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저주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해독되면 그 자리는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해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수행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성에서 북쪽으로 30km지점에 위치한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아주 좁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뉘어져서, 여호수아가 큰 목소리로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 에발 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 대해 아멘을 하고,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이 행사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 산에서는 저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석회를 바른 돌비에 율법을 기록해서 세우는 세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 방정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발 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축복은 항상 골짜기 너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리심 산에서 선포되고 있는 축복은 바로 에발 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골짜기 너머에 있는 축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건너편 골짜기의 그리심 산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은, 저주의 자리에 해독제를 써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저주+해독제인 것입니다. 축복은 항상 골짜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해독제를 쓸 때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축복 방정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지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실 때에 삼라만상이 놓이는 자리는 근본적으로 저주로 특징지어 있습니다. 삼위의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시는데 그게 태초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태

초에(이 세상의 시작) 계획을 하시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이외에 다른 존재들의 영역이 생기는 것인데, 그 다른 영역은 기본적으로 저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 밖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영역이 상정되어서 드러난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결국 복지에서 살도록 허락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형편에 처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할 때처럼 렘4: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라고 저주가 임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바깥 영역은 기본적으로 저주입니다. 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저주의 내용물이 가득한 저주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인격성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갑니다.

마치 해저도시를 건설할 때에 강력한 풍선을 불어내면 바다 속에 공간이 만들어 지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저주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풍선처럼 들어가면서 하늘의 공간 빛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피조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혼돈 대신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 대신에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창조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밀려나서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그 바닷물이 양쪽의 벽처럼 쌓여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의 물이 비유적으로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로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자 홍해물이 덮어버리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신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나 하나님의 통치이시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이 저주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를 물리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창조=저주+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주가 억제되고 물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위한 삶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간구해본 적이 없고,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말해본적도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사람이 살 곳을 낙원인 에덴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에는 모든 인류 중 단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지를 약속하실 때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지를 달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혼자서 사람을 생각하실 때에는 언제나 에덴인 기쁨, 만족, 감사만 있습니다.

요17: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가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전5: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선민에게 주어질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아빠! 아빠!’라고 찾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 외에 다른 단어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다른 말씀도 해주세요. / 그래 알았다. 음- 어쨌든 기뻐하라’라고 하시면서 빌4: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하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 말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지요?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냈기 때문에 저주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밀어냈기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저주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혼돈’은 항상 답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모릅니다. ‘공허’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이면 또 배가 고프고, 오늘 좀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삼일 지나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은 걱정 근심이 가실 날이 없고 우울함이 걷힐 날이 없는데 저주가 덮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골짜기 너머에 있는 그리심 산의 축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봅니다. 에발 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해독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내게 현재 주어진 삶의 환경의 호불호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적 습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이럴 때에 ‘그렇게 떠오른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 등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전 죄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전광석화처럼 내 마음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오는 느낌, 들어오는 판단, 생각들을 그대로 안은 채로 마치 가미가제가 자폭하듯이, 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 죽을 때, 아무것도 변화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말고 고스란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석회를 바른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해지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잊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석회를 바른 돌비에 쓰인 율법이 비바람에 지워지므로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밀려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는 석회를 바른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비바람에 지워지듯이,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했으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모든 순간에 대해서는 석회 바른 돌비에 쓴 율법이 증거 하는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 생각과 그 뜻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기본 생각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단어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밀어내지만 않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만 밀어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이 가득한 내가 번제단에서 죽고,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임한 저주를 물리치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환경에서 축복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십자가 생활화를 또 다른 비유적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부터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절로 판단이 되고 생각이 들지만 움직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요17:13절의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내 마음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처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에서 떠나도 삶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는 단어 밖에는 모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쁨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시는 삶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결코 마음 속에서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석회 바른 돌비에 썼으므로 지워질 것을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저주에 중독된 상태가 해독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않아도 이미 축복으로 가득 찬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으로 디자인 된 준비된 날이 기다리고 또 그 다음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를 둔 내 생각과 판단이 유전 죄의 방해를 받아서, 돈이 없거나 병이 나면 큰일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러한 마음 자체를 죽이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순간 해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해독제를 씀으로서 지금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른 축복은 없어요. 지금 저주의 자리를 해독제를 써서 축복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다른 축복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저주의 영향력은 더 극대화되고 저주의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하고 더 괴로워하게 됩니다. 지금의 자리를 십자가 생활화의 해독제를 통하여 축복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축복의 방정식대로 오늘, 내일 죽을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